

‘패트 충돌’ 한국당 27명·민주 10명 기소

여 “기계적 균형” vs 야 “檢 정치 편향” 반발
유죄 확정시 총선 이후 무더기 재보궐 가능성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해 검찰이 여야 의원들을 무더기 기소함에 따라 4·15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여의도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특히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교안 대표 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23명이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국회법은 제166조에서 국회 회의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법은 19조에서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다.

이들이 공천돼 당선된다고 해도 최악의 경우, 보궐선거를 대거 치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단 한국당은 검찰의 무더기 기소에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벌인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단일대오로 재판에 임해 무죄를 입증받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소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황 대표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실제 피선거권이 제한될 경우 2022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한국당의 반발 강도를 키우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포항 방문 도중 기자들과 만나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며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으로서 여야가 총선을 앞두고 개혁공천 경쟁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이 큰 부담이다. ‘혁신 공천’ 등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재판 출석 등에 따른 ‘낙인 효과’로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도 예상과 달리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의원 5명이 기소되면서 검찰의 판단

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이번에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적용돼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기소가 민주당의 선거 대응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검찰의 기소판단을 비판하면서 한국당의 향후 대응에 따라 국회 폭력 사태를 정치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3호 영입’ 김병주 전 육군대장

더불어민주당은 2일 4·15 총선을 앞두고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출신의 김병주 전 육군대장(58)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영입인재 발표식을 열고 ‘영입인재 3호’인 김 전 대장이 입당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경북 예천 출생으로, 강원 강릉고와 육군사관학교(40기)를 졸업한 김 전 대장은 육군 제30기계화보병사단장과 미사일사령관, 육군 제3군단장 등을 거쳐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끝으로 지난해 4월 전역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대장 승진자이자 미사일사령관 출신 첫 4성 장군으로, 군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된다고 민주당은 전했다.

/연합뉴스



“잘 해 봅시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왼쪽)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영입인재 3호’인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 김병주 예비역 대장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연초부터 다시 대치

민주 “페트법 5건 6일 상정”
한국당 강행처리 규탄 집회
7~8일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새해 벽두부터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대치 전선이 다시 가팔라지고 있다.

여권이 지난해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속전속결로 임명하면서 검찰 개혁을 가속하자 자유한국당이 강하게 반발, 정국이 급랭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일께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및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5개를 일괄 상정해서 처리에 나선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3일 공수처법 등의 강행처리를 규탄하는 장외집회를 개최하면서 여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결집시킨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시동을 다시 걸고 있다. 이번 주까지는 국회 일정을 잡지 않고 법안 처리에 대한 한국당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되, 안되면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6일 정도는 분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면서 “패스트트랙 개혁법안 5개는 다 같이 올릴

것이고 민생법안은 여야간 협의의 정도에 따라 올라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열리면 형사소송법부터 시작해서 설 연휴 전에 개혁 입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30일 시작한 현재 임시국회 회기를 언제 끝낼지 고심하고 있다. 여기에는 7~8일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 표결 일정도 고려될 전망이다.

한국당은 이날 추 장관을 임명한 것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 제출부 요청 기한을 이틀만 주고 시한이 끝나자마자 임명한 것은 ‘국회 무시’라는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오늘 아침 7시에 추 장관 임명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똑딱 해지웠다”며 “이는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을 하루라

도 빨리 무력화하고 장악해서, 권력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조바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공세도 계속하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밀실야합에 의해 탄생한 괴물 선거법, 친문 비리 은폐와 반대 세력 탄압을 위한 공수처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영원히 사라져야 한다”면서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3일 오후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文정권 2대 독재악법, 3대 국정농단 심판 국민대회’도 연다.

이런 가운데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한 한국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설지 여부도 관심사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

㉠ 총선 라운지

이정희 출판기념회…광주·남구 발전전략 소개

광주 동남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이정희 광주 동남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오는 5일 오후 2시 30분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체육관에서 자신의 책 ‘에너지가 밥이고 일자리이다’ 출판기념회를 한다.

이정희 예비후보는 이 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과 인연, 한전 상임 감사로서의 활동, 이정희 예비후보가 생



각하는 광주와 남구의 비전과 발전전략 등을 소개한다.

또 이 예비후보는 ‘포럼광주’의 대표와 2017년 대선에서 광주 시 상임선대위원

장 등으로 활동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만 들기에 나서게 된 이유와 그 과정을 자세히 소개했다.

고삼석 “주민 관점 미디어 콘텐츠 재정립해야”

광주 서구를 예비후보

오는 4월 총선에서 광주 서구를 지역구 출마를 준비중인 고삼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2일 kbc광주방송과 CMB 광주방송에서 ‘5G초연결시대, 미디어·ICT 환경변화와 지역 미디어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신년 특강을 진행했다.

이번 특강은 지역 민영방송과 케이블 방송이 새해 시무식에 이어 최근 급변하고 있는 미디어·ICT 분야의 트렌드를 파악하고, 지역 미디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회사 차원에서 마련됐다.

이번 특강에서 고전 상임위원은 “5G 초연결시대의 도래에 따라 시장환경과 이

용자들의 미디어 이용행태가 급변하고 있다”면서 “변화된 환경에 맞춰서 지역방송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특히 시청자인 지역주민들의 관점에서 콘텐츠와 서비스 전략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형석 “황교안 대표, 전광훈 동조는 파렴치”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를 국회의원으로 예비후보인 이형석 최고위원은 2일 ‘폭력 집회 주도 혐의의 전광훈 목사’에 대해 반드시 구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전 목사는 ‘하나님 짝꿍’이라는 가짜뉴스를 퍼뜨려 ‘죽어’라는 발언을 하며 성직자로서는 입에 담지 못할 신성모독의 극치를 보였다”면서 “이런 비이성적이고 신성 모독 행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 목사”에 대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동조하며 종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종교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폭력과 내란선동 및 신성 모독을 이어가는 전광훈 목사를 반드시 처벌해 법의 질서를 바르게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정훈 “한전공대 등 나주·화순 4대 약속 완수”

나주·화순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나주·화순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일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신정훈 예비후보는 “진짜 여당 지역구 국회의원을 뽑아 민주당을 호남의 제1당으로 만들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진정한 민주당의 승리는 아무나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이 승리하는 것이며, 김대중, 노



무현, 그리고 문재인 의 승리를 담아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신 예비후보는 “나주 에너지밸리 특화, 한전공대 2022년 개교, 화순 바이오메디컬 허브, 방사광가속기 센터 유치,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나주·화순의 4대 행복 약속’을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경,공매 컨설팅

부동산 추천 물건

- 건물** 광주 서구 치평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434.44㎡(131.4평) 건물 : 2536.91㎡(767.42평) 지하1층 지상7층 **매매가 53억** 상무지구 이마트 인근 보금금 1억7천 월수익 2천5백
- 건물** 광주 광산구 월계동 (중심상업지역) 토지 : 764.8㎡(231.35평) 건물 : 463.54㎡(140.22평) 지상4층 **매매가 49억** 보금금 4억 월수익 1천9백만 임방울대로 대로변 위치최상
- 건물** 광주 광산구 우산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623.8㎡(188.7평) 건물 : 1642.56㎡(496.87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32억** 현 사우나운영중, 세계수영대회 선수촌아파트 앞.
- 건물** 광주 동구 학동 (2종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토지 : 770.1㎡(232.95평) 건물 : 1458.86㎡(441.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28억** 학동 아이파크 인근 대로변
- 건물** 광주 광산구 신가동 (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900㎡(272평) 건물 : 1900㎡(547평) 지상6층 **매매가 36억** 전시광고효과 좋음, 신가재개발부근, 투자적합
- 건물** 광주 광산구 삼거동 (계획관리지역) 토지 : 4556㎡(1378평) 건물 : 2766.44㎡(836.844평) 지하1층 지상3층 **매매가 40억** 현 요양원 운영중, 빛그린국가 산업단지 인근

"상무지구 · 법원 앞 수익률,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추천 물건

- 공 장** 전남 곡성군 삼기면 월경리 토지 : 9941㎡(3007.2평) 건물 : 3875.05(1172.2평) **감정가 29억3천만원, 최저가 (70%) 20억5천1백만원**
- 공 장** 전남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토지 : 16552㎡(5007평) 건물 : 7077.93㎡(2141.1평) 울촌제1산업단지내 **감정가 55억5천3백만원 최저가 55억5천3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동구 충장로5가 78 토지 : 1403.6㎡(424.6평) 건물 : 8545.06㎡(2584.9평) 지하2층 지상8층 **감정가 89억6천7백만원, 최저가 89억6천7백만원**
- 근린시설** 광주 북구 중흥동 704-9 토지 : 662㎡(200.3평) 건물 : 4555.58㎡(1378.1평) 지하2층 지상10층 **감정가 41억9천8백만원, 최저가 41억9천8백만원**
- 근린시설** 전남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토지 : 607㎡(183.618평) 건물 : 762.51㎡(888.809평) 지하1층 지상3층 곡성온천 **감정가 6억9천3백만원, 최저가(70%) 4억8천5백만원**
- 대 지** 전남 담양군 금성면 원천리 99번지 토지 : 1749㎡(529.1평) **감정가 1억4천5백만원 최저가 1억4천5백만원**
- 아 파 트** 광주 광산구 수완동 대방노블랜드6차 42평 **감정가 6억6천8백만원, 최저가 (70%) 4억6천7백6십만원**
- 아 파 트** 광주 북구 두암동 무등산 이스토리 1층 62평형 **감정가 4억1천6백만원 최저가 4억1천6백만원**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10~200억대 건물, 병원 다량보유 / 매매·임대·급매 전문/ 경·공매 전문

대표공인중개사 전민규 010-4234-8640, 062-714-2251